

울산종친회 선조 유적지 탐방



청암정 앞에서

안동권씨 울산종친회(회장 권의호)는 지난 11월 10일 울산종친회 주관으로 각 지역 7개 친목 단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버스 2대를 임차하여 경북 봉화 일원에 위치한 선조 유적지를 탐방하고 참배하였다. 권혁환 울산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정식에서는 권의호 울산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하는 선조 유적지 탐방 행사에 울산종친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선조님들의 발자취를 공부하고 가을의 풍광을 마음껏 담아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현기 청장년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안동에서 개최한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에 함께해 주신 종친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선조유적지 탐방으로 인해 울산 종친이 더욱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정식이 끝나자 일행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출발하여 수목원의 가을풍경을 둘러보았다. 점심 식사 후에는 충재(沖齋) 권별(權傑, 1478~1548)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손자 석천(石泉) 권래(權來)가 선조 41년(1608)에 건립한 한수정(寒水亭)을 탐방했다.

한수정(寒水亭)은 '찬물과 같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라는 정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못과 정자 사이에는 초연대(초然臺)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으며, 연못 와룡연(臥龍淵)이 집을 삼면으로 감싸고 있어 불만다.

다음으로는 명승 제60호로 지정된 봉화 달실마을의 명소로 유명한 청암정에 들러 문화해설사로부터 충재 권별 선생과 청암정에 대해 해설을 들었다. 청암정은 거북이 모양의 천연의 너럭바위 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 너럭바위는 물속에 든 거북으로 비유되는데, 물속에 거북이가 자리하고 그 위에 정자가 올라앉아 있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정자 안에는 '청암정'이라는 당호와 함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6~1682)이 쓴 '청암수석(靑巖水石)' 편액이 걸려 있다.

이어서 청암정 바로 옆에 위치한 충재 박물관에서 충재 선생의 일기, 고문서, 보물 등을 관람하였다. 다음은 충재 권별 선생의 묘소를 관리하는 후원재를 둘러본 후 부근에 위치한 충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다시 충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간단한 간식과 함께 권의호 회장님의 인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가하였다.

권은목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대구종친회 가족의 날(화수회) 개최



대구종친회(회장 권오섭)는 11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한 대구장에 인종합복지관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상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명랑운동회, 가수 공연, 장기자랑,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모처럼 운동장에서 음악에 맞춰 몸도 풀고 운동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돈독한 정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권상주 사무국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공공외교연구원 상임부위원장 면담

충장공 권율 도원수 행주산성 유적지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소재 한중교류센터에서 방한 중인 쑨즈궈(孫治國) 중국공공외교연구원 상임부회장을 만나 한중 관계와 동북아정세 등에 대해 대담했다. 권 회장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쑨 부회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중국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목표"라며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대담 후 쑨 부회장과 인근 한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내년도 양 기관의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쑨즈궈(孫治國) 중국공공외교연구원 상임부회장과 권기식 회장(오른쪽)

쑨 부회장은 오찬 후 권 회장의 안내로 충장공 권율 도원수 행주산성 유적지를 방문했다. 중국공공외교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로 100여 명의 전직 대사급 외교관 출신들이 국제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권혁환 편집국장

안동권씨 부산부녀회 추계 야유회

부산부녀회(회장 권정희)에서는 11월 8일 회원 25명과 비회원 6명 등 31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에 위치한 내장산으로 추계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번 야유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인 야유회를 갖지 못하다 5년 만의 나들이다. 부산부녀회는 전체 회원 50명으로 안동권씨 종친회 중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부녀회이다. 회원들은 시조 대사공 춘추향제에



권정희 부산카페지기 촬영

화사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매년 참석하고 있다. 봄가을에 시조 대사공 묘소에는 어여쁜 꽃이 피고 있다. 총무 권상자

미주 안동권씨 종친회 야유회 개최

미주 안동권씨 종친회(회장 권영현)는 지난 9월 15일 일요일에 뉴저지 톨만 마운틴 스테이크 파크(Tallman Mountain State Park)에서 H-MART(대표 권일연) 협찬과 FM뉴욕 라디오 코리아(대표 권영대) 후원 하에 5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가족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권영현 미주안동권씨 종친회장



September 15, 2024

동정



▲ 권명호 전 국회의원이 11월 4일 한국 동서발전(주) 사장에 취임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에 본사를 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권명호 신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시의원, 구정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주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사 사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해 출신으로 김해고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 권기철 변호사가 동아대학교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기철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인 희망 여행의 몽골희망원장대 단장을 맡는 등 동아대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 받았다.



▲ 권세환 전 상주교육장이 상주박물관장으로 7월 2일 고서적 61권을 상주박물관에 기증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권세환 전 교육장은 상주 공검 출신으로 상주교와 안동고대, 계명대 교육대학원(교육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영양 수비초교에서 교사로 출발해 구미 임봉초교 교장, 도 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초등학교과장 등을 역임했다. 상주 임란북전전적지 총렬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 권순복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11월 부산광역시로부터 '2024년 통일운동 유공 포상' 표창을 받았다. 권 교수는 국내 최초로 남북한(장애인) 언어치료 학문의 통일과 기반을 구축하며, 남북한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 대학 강단과 학회에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통일의식 고취와 통일운동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사단법인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권백진 전 정책보좌관이 20일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권백진 대표이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 권오윤(사진 왼쪽) 대총회 부회장과 권영호 대사문화회원이 지난 11월 2일 봉행된 2024년 종묘추향대제에서 영녕전에 배향된 조선 5대 왕 문종과 현덕왕후 안동권씨의 종헌관과 아현관으로 봉작했다. 종묘대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제로 조선왕조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행하는 제향이다. 이날 종묘추향대제는 이원 황사손과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 권동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임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권 상임감사는 경남 김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대표번호 02-3472-59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5층